

이야기에 앞서, 아래 내용은 창작을 업으로 삼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에게 '졸작 표절'과 관련한 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을 알립니다.

부산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4학년은 1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졸업작품으로 선보입니다. 4학년 개강 전부터 스토리와 콘티를 짜는 프리프로덕션을 마치고 초반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학기가 끝나있습니다. 3학년 학생분들께선 '웹툰졸작'을 진행하며 열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표절 사건의 당사자는 19학번 장한나 학생과 19학번 윤예인 학생으로 2022년 4학년 1학기, 애니메이션 프리 프로덕션 작업 당시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졸업인원이 대부분 다른 학번이라, 거의 유일한 동기와 닮았던 두 사람은 당시 윤예인 학생이 스토리가 통과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었을 때, “내가 같이 교수님 사무실 가줄까?”하며 장한나 학생은 이태구 교수님의 스토리 및 스토리 보드 피드백을 함께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면 공유가 되는 디스코드나 커피브라운 카페 등에서 졸작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동시에 휴학합니다.

여기서 2022년 4월 ○윤예인 학생의 졸작발표 영상 첨부합니다.

<https://youtu.be/2mV6cz5c8SA>

-

휴학 기간 동안 두 사람 간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에 2023년 4월로 넘어갑니다.

◆

장한나 학생은 복수전공인 심리학 전공을 위해 복학합니다.

이와 동시에 "윈도우에 이상이 생겨 졸업작품을 모두 유실했다."고 말했고 다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는 그 때 당시 장한나 학생을 포함한 디스코드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윤예인 학생과 친분이 전혀 없는-이 여럿 있으므로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2023년 7월

윤예인 학생이 복학합니다. 예정대로 준비했던 2022년도의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태구 교수님께 상담을 위해 찾아갔으며 다음 문장은 윤예인 학생의 작업물을 본 교수님의 코멘트입니다.

"어어...와... 어... 한나 작품이랑 너무 똑같은데? / 한나가 네 걸 참고했나 보네..."

이는 2022년 장한나 학생과 윤예인 학생의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지켜 본 이태구 교수님의 말씀이며, 이 문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뉘앙스의 왜곡조차 없음을 밝힙니다.

앞서 첨부했던 윤예인 학생의 애니메틱을 상기해주시시오.

여기서 7월 당시 장한나 학생이 4월 이후 새로 만들었던 ○졸업작품 원동화 영상을 첨부합니다. <https://youtu.be/qw7SLgbJyal>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의 ○편집영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6ugj1UeotSQ>

#### ◆7월 4일\_4학년 대면 회의날

(이태구 교수님의 말씀으로 윤예인 학생은 자신의 작품과 장한나 학생의 작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 장한나 학생은 윤예인 학생의 복학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장한나 학생의 졸업작품 원동화 영상을 본 뒤, 윤예인 학생은 이태구 교수님께 복학하며 상담했을 때 교수님께서 유사성을 인지하셨던 부분이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달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나요?

그 부분이 ○편집영상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로맨스 학원 장르의 실내에 있던 편지가 창문과 바람을 통해 야외로 날아가 좋아하는 사람의 주변에 안착한다] 는 전체적인 플롯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플롯 속 설정된 클리셰 장치를 인정하고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이태구 교수님께서 '편지가 날아간다'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일치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그랬냐 물으셨고, 장한나 학생은 "예인이가 복학할 줄 몰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회의 중에 물어본 거라 증인 다수 존재합니다.

-회의 이후

이태구 교수님을 중심으로 장한나 학생과 윤예인 학생 둘이서 나눈 대화입니다.

장한나 학생은 'DAY6'노래에 영감을 얻어 뮤비 형식의 졸업 작품을 진행하려 했지만 자신이 구성한 콘티는 교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음. 현재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추천하고 '역지로 시켜서'-실제로 쓴 키워드입니다.-작업했다 주장합니다.

윤예인 학생은 졸작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지만

이태구 교수님은 그 사이에서 윤예인 학생에게 그냥 "니가 이해해라"며 이 자리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 날 밤, 장한나 학생은 이 표절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윤예인 학생은 내용을 바꾸기 전엔 연락하지 말라며 일갈했습니다. 이후 장한나 학생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 ◆2주 뒤

장한나 학생은 윤예인 학생이 자신의 대화 신청을 거부했으므로 자신이 바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장한나 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번 년도 졸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늦게 합류한 윤예인이 해당 사유로 수정 요청을 할 이유가 불충분하다. 장르가 겹친다는 이유로 이르는 게 짜증난다.

윤예인 학생은 이후 4학년 단체 채팅방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 표절 건에 대해 이태구 교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

[7월 20일 오전 9시 이태구 교수님 전화]

이태구 교수님께서 윤예인 학생에게 "너 지금 하나의 인생 망치려고 한다" 라며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교수님 말 듣고 장한나 학생에게 전화]

장한나 학생과의 전화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한나 학생의 작품 중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장면>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편지를 전달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이후, 장한나 학생은 본가에 가 있느라 7~8월 3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9월 개강

윤예인 학생이 장한나 학생에게 수정 작업에 관련해 물어보았고 잘 바꿨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9월 26일 졸업작품 최종심사

졸업작품 최종심사는 이태구 교수님과 4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한 자리에서 완성된, 또는 완성태를 갖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장한나 학생의 졸업작품 중 문제시 되었던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장면>은 삭제되었습니다. 발표 당시 영상 첨부합니다.

○장한나 학생 작품 [https://youtu.be/pwC\\_dsxQB8Y](https://youtu.be/pwC_dsxQB8Y)

위 영상 중 '편지가 장소를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거라 예상됩니다. 당시 장한나 학생에게 편지가 이동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제3자인 19학번 김해랑 학생이 주도적으로 "창틀에 낀 거 고양이가 물어가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영상의 [1:45],[1:50],[2:01]를 주목해주시오.

더 이상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어 이만 줄이겠으나,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8일 4학년 단체 채팅방, 재공론화

윤예인 학생은 7월, 첫 공론화 이후 졸업반 분위기와 장한나 학생의 원활한 졸업 작품 수정을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졸업작품 최종심사 이후 재공론화 합니다.

◆9월 29일 4학년 단체 채팅방

장한나 학생은 "저는 최종 발표회를 보고 다시 한번 표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0월 1일 장한나 학생과 윤예인 학생 개인톡

7월부터 장한나 학생에게 요구했던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장한나 학생이 주장했던 이태구 교수님의 역지로 시켰던 정황입니다. 그러나 장한나 학생이 제공한 메신저 내용은 장한나 학생이 내보인 스토리를 이태구 교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이었습니다.

-

긴 글을 마치며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배 여러분들께 이 공론화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제 억울함에 힘을 실어달라는 압박이나 동정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는 창작을 업으로 삼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입니다. 4학년 졸업작품은 아마추어로서 가장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기에 의미가 크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졸업작품 표절'이라는 꼬리표는 소문이 빠른 이 업계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매정하냐...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공론화를 10월, 졸업작품 발표가 다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끌고와서라도 초반에 깔끔하게 해결했을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졸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한 친구의 작품을 그대로 쓰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요.

그러나 소수의 작품이 상영되는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이 정도 유사한 내용의 작품이 나온다면...잇따르는 상황들은 모두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전 개인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준비했던 제 작품에 대한 속상함이 큼니다. 제 행동이 시발점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들인 후에야 이 일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론화 이후, 무언가 바뀌길 원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장한나 학생의 졸업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초기부터 확실한 수정만을 바랐고, 3개월간 기다린 사태에 대한 인정과 사과 하나면 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표절작을 방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산대학교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의 청렴한 창작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